

사설

겸손이 훑훑 때 세상이 비로소 아름다워져

겸손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없다. 겸손이 주유할 때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다. 법이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질서가 잡힐 수 있다. 그야말로 세상은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던 말이다. 겸손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힘도 들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도 겸손이다. 끝없는 욕심이 겸손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행사장을 가바라. 잔치집에도 서로를 뒷자리에 앉으려고 난리들이다. 그래야 자신의 권위가 더 빛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산행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 때 반갑게 받아주면서 인사를 되돌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한 모습으로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말할 때는 입에 게거품을 물어가며 장황설을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금방 시뒀해 버리면서 조는 사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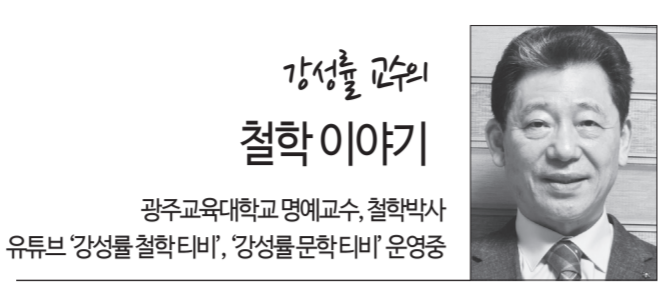
자신에게는 존경을 써가며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충하는 이도 있다. 남의 허물을 조야만한 것도 태산처럼 부풀려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자신의 큰 허물은 조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이 세상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부족할 정도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도덕률과 종교가 있어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사찰 등 성전이 생기고 또 생겨도 이 세상의 혼탁함은 결코 맑아지지 않고 더 탁해져가기만 하는가 보다. 이는 곧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그 어떤 방면에서도 자신을, 자기 집단을 낮추려 하는 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마다 아귀다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점잖게 문화와 예술을 논한다는 문화계와 예술계에서마저도. 어디 그뿐인가.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종교계는 또 어떤가. 가끔씩 스님들과 신도들이 뒤엉켜 소림사의 결투를 보여주지 않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바세계의 욕심이 그대로 사찰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로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구세력의 갈등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다른 곳도 아닌 종교계에서까지 이런 하극상의 행태들이 빚어질 때마다 절망을 봐야 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보통 인간들의 그것들보다 더 추하고 악해 보였다. 신을 빙자하면서 가장 하극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신자들에게는 변질변질한 설교를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목회자 자신들마저도 자신들이 한 설교의 10%만 목회자 자신들이 지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 했겠는가.

물론 목회자도 인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질 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평생이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이 말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라. 그런 다음 범인들처럼 살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가. 바로 겸양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하지만 겸손이 훑훑 때 세상이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말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무소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였지만, 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낼 수 있는 집까지 구하여,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런 친밀한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다. 윌폴(1717년~1797년, 영국 소설가)이 무소에 대한 풍자의 글을 영국 출판계에 발표하자 무소의 피해망상증이 재발하고 말았던 것. 무소는 이것을 흠의 탓으로 돌리며, '흠이 철학자들과 합세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믿었다. 흠은 자신의 결백을 무소에게 설득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무소는 1767년까지 대번포트(영국 플리머스의 항구 도시)에 머물다가 말 한마디 없이 프랑스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흠이 것처럼 무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 스코틀랜드(섬) 출신으로 잉글랜드(영국 본토)에서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던 흠은 (앞 호에서 말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최고의 찬사와 좋은 대접을 받았다. 반면, 무소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의회로부터는 단죄되었다. 성직자들이 선동한 군중의 돌팔매질을 받았고, 조국인 스위스에서마저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모두 1762년 무소의 『사회계약론』과 『에



강성호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호 철학티비, 강성호 문학티비 운영중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흠과 무소(2)

『에밀』이 나오면서부터였다. 프랑스 파리에 서 『사회계약론』은 봉인되었고, 『에밀』은 불태워졌다. 경찰은 이 책을 압수하는 한편, 무소에게 신체 구금의 형을 내렸다. 무소는 당시 프러시아에 속해 있던 뇌샤텔(프랑스와의 국경에 있는 스위스 도시)의 공국으로 피신하였고, 여기에서 국적을 얻는 대신 (스위스) 제네바의 시민권을 포기하였다.

이 무렵, 흠은 바로 이 53세의 광명객(무소)을 위해 영국에 은신처를 마련해 줘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맡은 것이다. 물론 흠이 무소를 직접 쫓긴 데에는 평소 자신의 소외감 경험이 한 몫을 거들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시 흠이 무소에게 제안한 내용을 들여보도록 하자. "영국의 서적상들은 (프랑스) 파리의 서적상들보다 더 많은 인쇄(印刷)를 지급할 수 있으니, 당신이 조금만 노고를 무릅쓰시면 겸손하게 생활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말하는 이유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어떤 보답조차 받지 않으려는, 당신의 단호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이에 대한 무소의 답변 역시 매우 호의적이었다. "당신의 선량한 마음은 내게 영광이자 감동입니다. 당신의 제안에 대한 최고의 답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는 감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5-6일 안에 당신 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 (중략) 무엇보다 이는 같은 시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정명하며 선량한 마음이 그 명성을 뛰어넘는 당신에게 의지함을 기뻐하는, 내 마음의 충고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고독하고 자유로운 은신처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밀』이라는 명저를 남겼지만, 당시 무소는 불온한(?) 서적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으며 유럽 전역을 방랑하고 있었다. 이때 흠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다. 드디어 1766년 1월 10일 저녁,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영국 해협. 폭풍우가 몰아쳐 있던 객선 한 척에 영국인 외교관과 스위스인 망명객이 함께 올랐다. 물론 데이비드 흠과 장 자크 무소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목적이 다른 영국의 도버 항구 쪽을 바라보며, '서로를 영원히 존경하고 우정을 함께 나눌 것'을 굳게 약속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가 화재의 시작이 된다

길을 걷다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불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면 그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화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최근 5년간 장흥군에서는 총 46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

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도 약 56억 원에 달한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불철에만 139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전기적 요인이 23%로 뒤를 잇고, 기계적 요인과 원인 미상 화재는 각각 4.5% 수준이다.

◆발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투기, 야외 취사 후 불씨 방치 등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부주의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담배꽂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야외 활동 후 불씨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이 화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캠핑이나 야외 취사 시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살피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

화기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화재는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부주의가 쌓여 만들어지는 재난이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를 제대로 끄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장흥소방서장 문병은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음력 2월 2일)

48년생 행복을 약속하는 제안을 들어보자.60년생 적자였던 기복후자로 돌아선다.72년생 낙제점 성적표 반성문을 써보자.88년생이쉬운 현실이발목을 잡아준다.96년생 미운소리 들어도 한우물을 파보자.

49년생 밀재야 본전이다.호기를 부려보자.61년생 거한 선물을 하리숙여 받아내자.73년생 품앗이 수고도 열심히 해야 한다.85년생 반쪽짜리 인연과눈빛이오고간다.97년생 무척이나반기온순남맞아보자.

50년생의외의성과로직업을 실패우자.62년생여럿이함께축하전지를 불러보자.74년생후수에진주처럼칠고인.84년생별고운이아기시름으로변해진다.98년생달라하는부위얼굴을두껍게하자.

51년생 재촉하는 성화도 모른 척해야 한다.63년생 크게가는 의견선을 그려내자.75년생 관히하는 허세 모양안빠져준다.87년생더디기는 속도배름을 가져보자.99년생 그만하라.인류 고분고분따라가자.

52년생 기쁨이 배가되는 소식을 들어보자.64년생 하늘의 도움을 녀껴 받아내자.76년생 조야조야 긴장 심하게 마쳐준다.88년생 농칠수없는 기회각오를 다시하자.00년생 박수치며머무리 훑까지 넘쳐준다.

53년생 새어나오는 한숨속으로해야한다.65년생 거칠게오는 시련맞장구를 쳐보자.77년생 줄수없는 미안함애써외면하자.89년생들어서는안될말귀를막아내자.91년생 무조건찬성으로 한식구강제주자.

54년생 연신 상금병글 천국이 부럽지 않다.66년생 보여주고 싶은 자랑이 생겨준다.78년생 좋아하는 의도에 동침을 서두르자.90년생 긴지한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자.02년생 어릴지만 불평불만도 없어야 한다.

55년생 짧은 행복 뒤에 아픔이 길어진다.67년생 누구라는 이름 화려함이 더해진다.79년생 긴게 쌓인 우정 급한 불을 꺼준다.91년생 한해진 미소 기운은 구름을 탄다.03년생는 시를 붙여지는 건등이 밀려온다.

56년생 노력의 대가 갚아야 든든해진다.68년생 표현하는 방식 고급화를 가져보자.80년생 계획에는 차질 수습을 서두르자. 92년생 정직히출 린명보적으로변해진다.04년생아직은미완성.혼.면서배우보자.

57년생 헤어짐의수은 미련 남기지마라.69년생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꾸미지 마라.81년생 이웃의 이름을 지키고 아껴주자.93년생 자부심과 긍지높이올라간다.05년생 열심히하는 모습겸수로매겨준다.

58년생 살림살이 줄고야 낭비를 막아내자.70년생 경쟁이나 시험 필등 하일사한다.82년생 혼자만의 욕심 원성을 들어야 한다.94년생 쉽다하는 범심약으로 못고진다.06년생 혼자만의 시간도 알뜰히 써야 한다.

59년생 자우고다시 씨앗을 발수할 수 있다.71년생 대신하는 지리초라 하고 어색하다.83년생 지레짐과 열심히 피하고 도망가자.95년생 고과서 배움에 모범상이 되어보자.07년생유리한설리지는 만능을 가져보자.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송암 발행인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인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입국 교 2007
인쇄: 주대인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흡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흡군 고흡군축제위원회